

“여수 돌산 보존과 성장 동시에”

시의회 돌산개발조사위 보고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 제안 “소미산 훼손지 장마철 이전 복구”

여수시의회 돌산개발조사위원회가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2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에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나현수 위원장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키워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꼽고, 무조건적인 개발 금지보다는 정주여건 향상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여수형 도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가이드라인 구축 과정에서는 지역별 전문가를 선임하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기본방향 설정단계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건축기본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는 지난해 돌산 소미산 불법훼손을 계기로 개발행위 실태파악을 위해 구성됐으며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지난 1월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위가 도출한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소미산 불법훼손 부분은 여수시가 법률자문과 정문과 등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구 부분은 적합한 수목 선정, 2차 재해 예방, 주변경관 재해 최소화 등을 포함한 복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복구 추진 시에는 전문가인 산림조합

중앙회 등이 시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장마철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갯바위 훼손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대책 수립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해양경관을 살릴 수 있는 관리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향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담당부서 인력 충원과 단속팀 신설, 특별사법경찰 배치, 도시계획 전문가 배치, 인허가 관련부서 간 협업강화 등을 권고했다.

돌산-화양지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나현수 위원장은 “여수시는 시장요구와 건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 6년만에 운행 재개

순천시가 지난 26일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정원에서 스카이큐브 인수 개통식을 열고 운영을 재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허석 순천시장과 신택호 시민인수위원회 위원장, 시의원, 위탁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순천시의 경과보고와 테이프 커팅에 이어 정원에서 문학관역까지 시승 행사가 이어졌다.

문학관역에서는 친환경 갈대열차 운행도 시작했다. 갈대열차는 운행이 중단된 지 6년 만에 경유 자동차에서 친환경 전기차로 바뀌 문학관에서 순천만습지 입구까지 갈대 탐방로 구간을 왕복 운행한다.

스카이큐브는 순천만국가정원이나 순천만습지 입구 매표소에서 통합권을 구입할 경우, 국가정원, 습지, 스카이큐브 모두를 일반인 기준 1만 4000원, 순천시민은 6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허 시장은 “순천 시민의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스카이큐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스카이큐브가 이제는 우리 시민의 것인 만큼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업체는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26일 운영을 재개한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를 시승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자 2019년 3월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중재 결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스카이큐브 인수를 위한 범시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인수작업을 벌였으며 최근 위탁업체를 선정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녹차, 7년 연속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수상

보성녹차가 7년 연속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지역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한국소비자협회 주관으로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보성녹차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2002년 농축산물분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돼 차의 역사성과 품질 우수성을 공인받은 보성녹차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명가 명품 지역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보성군은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이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데 이어 현재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보성차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차산업과 차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2022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를 국제행사 규모로 준비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연간 30억원 수출을 목표로 아마존뿐만 아니라 대형 프리미엄 마켓 입점 등 전



세계에서 보성차를 만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광양제철소, 78억원 상당 광양사랑상품권 구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78억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제철소 직원과 협력사에 나눠줄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광양제철소는 지난 26일 광양시청에서 광양사랑상품권 구매 약정식을 하고 78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매에 나섰다.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광양제철소와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광양사랑상품권은 제철소는 34억3500만원, 협력사는 44억16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전달될 예정이다.

광양제철소는 광양사랑상품권 구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기대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및 협



역사 직원들의 상품권 사용으로 지역에 창출될 경제적 효과는 수십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광양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는 상품권을 구매했다”면서 “포스코가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GS칼텍스 노사, 여수지역 중·고생에 장학금 5000만원

GS칼텍스 노사가 지역 청소년들의 학습비를 16년째 지원했다.

GS칼텍스 노사는 지난 25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지역 중·고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전달식에는 김해룡 여수교육장, 지원 대상 4개 학교 교장, GS칼텍스 김재오 노조위원장과 오문현 대외협력 부문장,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GS칼텍스 노조원들이 모은 사회봉사기금에 회사가 임직원 기부액과 동일한 금액을 후원하는 제도인 ‘매칭 그랜트’를 더해 마련됐다.



GS칼텍스 노사는 2006년부터 총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맞춤형 학습 교실 지원 외에도 중·고생 교복나눔, 여수YMCA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여수시 따뜻한 밥상 후원 등을 하고 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옥천펄프카, 450만원 상당 코로나 극복 물품 기탁

㈜옥천펄프카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마스크 1만장과 라면 50상자, 손세정제 40상자 등 총 450만원 상당의 코로나 극복 물품을 곡성군에 기탁했다.

<사진>

기탁된 물품은 지체장애인 협회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상혁 옥천펄프카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



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파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